제7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김유곤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4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선정 작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간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논문은 총 51편이 있었다(등재 학술지 50편, 등재 후보 학술지 1편). 경학에 관한 논문으로 선택한 기준은 유교 경전인 十三經에 대한 한국과 중국 유학자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51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 두 명 이상의 학자를 비교한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7편에 대해 분석 및 비평을 하고, 2014년 경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짧은 소견을 제시했다.

2. 인물별 분류

총 51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45편이다. 한 인물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6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이다. 두 학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교 논문은 4편이다. 부제목이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 논문은

비교 논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래 다루고자 하는 인물의 경학 사상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한 비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 한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36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룬 인물은 李滉(退溪, 1501-1570)으로 총 9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수경	퇴계의 『시경』 釋義 고찰에 대한 번역학적 탐색	한국한문학연구 제55집	한국한문학회
2	김유곤	퇴계의 『대학』 해석의 특징(-율곡 『대학언해』와 교정청본 『대학언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3	서세영	퇴계 이황의 『중용』 해석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4	엄연석	조선전기 『중용』 이해와 퇴계 『中庸釋義』의 해석 특징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5	최석기	조선전기 경서해석과 이황 경학(-조식의 경학과 비교를 통하여-)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6	함영대	퇴계의 『孟子釋義』와 조선 전기의 맹자해석(-퇴계의 맹자학의 성격과 지향-)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7	황병기	퇴계 이황의 주역학과 『周易釋義』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8	이은호	조선 전기의 서경학과 『書釋義』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9	전재동	퇴계학파 경전주석의 전승과 『論語釋義』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다음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인물은 正祖(弘齋, 1752-1800)로 3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정조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춘추학의 핵심 쟁점(-經史講義「總經 1 : 춘추」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6집	한국유교학회
2	김동민	정조의 『경사강의』를 통해 본 『춘추』 경전의 이해(-경사강의 「총경 3 :	동양철학연구 제79집	동양철학연구회

		춘추」를 중심으로-)		
3	김동민	정조의「책문 : 춘추」를 통해 본 조선조 춘추학의 문제의식	동양고전연구 제56집	동양고전학회

다음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인물은 曺好益(芝山, 1545-1609), 李瀷(星湖, 1681-1763), 愼後聃(河濱, 1702-1761), 丁若鏞(茶山, 1762-1836) 등 4명으로 각 2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석민	조호익 『易象說』의 해석틀 분석(Ⅰ)(-卦氣와 卦變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40집	한국동양철학회
2	윤석민	조호익 『역상설』의 해석틀 분석(Ⅱ)(-爻位·爻變과 기타 해석 틀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76집 제2권	새한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유곤, 김영호, 임옥균, 최영성	성호 이익의 『대학』 이해의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6집	한국유교학회
2	서근식	성호 이익의 『중용질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만일	정약용의 『상서』 「태서」편 고증 1(-「태서」의 분류와 금고문 상서와 관련하여-)	태동고전연구 제32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임헌규	다산 정약용의 『중용』 해석에 대한 일고찰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16명으로 시대순으로 나열해 보면 權近(陽村, 1352-1409), 徐敬德(花潭, 1489-1546), 李彦迪(晦齋, 1491-1553), 金長生(沙溪, 1548-1631), 李愼儀(石灘, 1551-1627), 金濤(恭默堂, 1580-1646), 宋時烈(尤庵, 1607-1689), 朴世堂(西溪, 1629-1703), 鄭齊斗(霞谷, 1649-1736), 韓元震(南塘, 1682-1751), 柳正源(三山, 1703-1761), 徐命膺(保晩齋, 1716-1787), 尹行恁(碩齋, 1762-1801), 崔漢綺(惠岡, 1803-1877), 沈大允(白雲, 1806-1872), 李奎晙(石谷, 1855-1923)이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학권	권근의 『周易淺見錄』에 나타난 성리학적 의리역학의 정초	동양철학 제40집	한국동양철학회
2	서근식	화담 서경덕의 先天易學 연구	한국사상사학 제47집	한국사상사학회
3	김인규	회재 『中庸九經衍義』의 경세론적 이해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4	김현수	사계 김장생의 『經書辨疑-中庸』 연구	한국사상사학 제48집	한국사상사학회
5	서근식	석탄 이신의의 『大學箚錄』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제41집	한국철학사연구회
6	김영우	김도 『周易淺說』의 의리역학 연구	동양철학 제42집	한국동양철학회
7	김영우	『尤庵易說』 연구	동양철학 제40집	한국동양철학회
8	신창호	서계 박세당의 『사변록 중용』 이해와 학문적 특징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9	선병삼	양명학자 정제두의 『중용』 이해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10	민황기	남당 한원진의 『중용』관과 인성론적 근거	유학연구 제3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주광호	유정원 『易解參攷』의 성리학적 해석 특징과 의리역학	동양철학 제42집	한국동양철학회
12	이봉호	『중용경위』의 심법과 선후천의 법상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13	남윤덕	정조대 학술동향을 통해 본 윤행임의 「薪湖隨筆-『中庸』」 해석의 특징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제8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4	백준철	최한기의 이상사회론에 대한 고찰(-『대학』 팔조목 중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40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5	노경희	심대윤의 『논어』 해석의 일단면(-利와 忠恕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제29집	한국한문고전학회
16	성호준	儒醫 이규준의 『중용』 이해	동양문화연구 제19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등재후보 학술지)

2) 중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5편의 논문 중 朱熹(1130-1200)를 다룬 논문이 2편 있고, 胡安國(1074-1138), 楊簡(1141-1226), 王守仁(1472-1528)을 다룬 논문이 각 1편씩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상돈	주자의 『대학』 絜矩之道論	태동고전연구 제33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임헌규	주자의 『중용』 해석에 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3	김동민	『춘추』 三傳과의 비교로 본 호안국 『춘추』 해석의 특징(-『춘추』「隱公」 조목의 쟁점을 중심으로-)	양명학 제37호	한국양명학회
4	이동욱	楊簡 『楊氏易傳』 연구(-王弼 易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제39호	한국양명학회
5	임홍태	양명의 『중용』관 연구(-『전습록』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3) 두 학자 이상 비교

2명 이상의 학자를 비교한 논문에는 4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희	『맹자』의 不忍人之心에 대한 주희·이토 진사이·정약용의 해석 비교	동양철학연구 제80집	동양철학연구회
2	김성준	정다산과 오규 소라이의 경학 및 경세학의 비교 연구사 검토(-국내연구 중심-)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3	박상리 송석준, 김예호	정제두와 정약용의 『대학』 이해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6집	한국유교학회
4	임옥균	주자·적생조래·정약용의 『논어』 해석의 차이(1)(-공야장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8집	동양철학연구회

3. 주제별 분류

이 책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를 삼았다. 이 분과에서는 경학 사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구 대상 경전으로 삼았다. 총 51편의 경학 논문을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중용』 관련 논문이 15편으로 가장 많고, 『역경』 12편, 『대학』 6편, 『춘추』 4편, 『논어』 3편, 『맹자』 3편, 『상서』 3편, 『시경』 관련 2편이 있다. 경전별로 분류하지 않고 한 학자의 경학 사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3편 있다.

1) 『중용』

『중용』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를 학자의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인규	회재 『中庸九經衍義』의 경세론적 이해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2	서세영	퇴계 이황의 『중용』 해석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3	엄연석	조선전기 『중용』 이해와 퇴계 『中庸釋義』의 해석 특징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4	김현수	사계 김장생의 『經書辨疑-中庸』 연구	한국사상사학 제48집	한국사상사학회
5	신창호	서계 박세당의 『사변록 중용』 이해와 학문적 특징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6	선병삼	양명학자 정제두의 『중용』 이해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7	서근식	성호 이익의 『중용질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8	민황기	남당 한원진의 『중용』관과 인성론적 근거	유학연구 제3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이봉호	『중용경위』의 심법과 선후천의 법상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10	남윤덕	정조대 학술동향을 통해 본 윤행임의 「薪湖隨筆-『中庸』」 해석의 특징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제8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1	임헌규	다산 정약용의 『중용』 해석에 대한 일고찰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12	성호준	儒醫 이규준의 『중용』 이해	동양문화연구 제19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등재 후보 학술지)
13	김유곤	조선 유학자들의 『중용』 해석(-특징적 두 양상을 중심으로-)	Acta Koreana 제17집 제2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중용』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헌규	주자의 『중용』 해석에 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2	임홍태	양명의 『중용』관 연구(-『전습록』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2) 『역경』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를 학자의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학권	권근의 『周易淺見錄』에 나타난 성리학적 의리역학의 정초	동양철학 제40집	한국동양철학회
2	서근식	화담 서경덕의 先天易學 연구	한국사상사학 제47집	한국사상사학회
3	황병기	퇴계 이황의 주역학과 『周易釋義』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4	윤석민	조호익 『易象說』의 해석틀 분석(Ⅰ)(-卦氣와 卦變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40집	한국동양철학회
5	윤석민	조호익 『역상설』의 해석틀 분석(Ⅱ)(-爻位·爻變과 기타 해석 틀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76집 제2권	새한철학회
6	김영우	김도 『周易淺說』의 의리역학 연구	동양철학 제42집	한국동양철학회
7	김영우	『尤庵易說』 연구	동양철학 제40집	한국동양철학회
8	최영진, 이선경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일고찰(-건괘를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심으로-)		
9	주광호	유정원 『易解參攷』의 성리학적 해석 특징과 의리역학	동양철학 제42집	한국동양철학회
10	정병석	조선역학사에서 圖象學的 象數學의 수용과 비판(-주자의 圖書易學과 소강절의 先天易學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8집	한국유교학회
11	윤종빈	한국의 易解釋史(1)(-여말선초에서 현재까지 天澤履卦 卦辭 해석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71호	한국동서철학회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욱	楊簡 『楊氏易傳』 연구(-王弼 易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제39호	한국양명학회

3) 『대학』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를 학자의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유곤	퇴계의 『대학』 해석의 특징(-율곡 『대학언해』와 교정청본 『대학언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2	서근식	석탄 이신의의 『大學箚錄』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제41집	한국철학사연구회
3	박상리, 송석준 김예호	정제두와 정약용의 『대학』 이해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6집	한국유교학회
4	김유곤, 김영호, 임옥균, 최영성	성호 이익의 『대학』 이해의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6집	한국유교학회
5	백준철	최한기의 이상사회론에 대한 고찰(-『대학』 팔조목 중	한국철학논집 제40집	한국철학사연구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중심으로-)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상돈	주자의 『대학』 絜矩之道論	태동고전연구 제33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춘추』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정조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춘추학의 핵심 쟁점(-經史講義「總經 1 : 춘추」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6집	한국유교학회
2	김동민	정조의 『경사강의』를 통해 본 『춘추』 경전의 이해(-경사강의 「총경 3 : 춘추」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9집	동양철학연구회
3	김동민	정조의「책문 : 춘추」를 통해 본 조선조 춘추학의 문제의식	동양고전연구 제56집	동양고전학회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춘추』 三傳과의 비교로 본 호안국 『춘추』 해석의 특징(-『춘추』「隱公」 조목의 쟁점을 중심으로-)	양명학 제37호	한국양명학회

5) 『논어』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전재동	퇴계학파 경전주석의 전승과 『論語釋義』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2	노경희	심대윤의 『논어』 해석의 일 단면(-利와 忠恕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제29집	한국한문고전학회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중국·일본 학자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주자·적생조래·정약용의 『논어』 해석의 차이(1)(-공야장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8집	동양철학연구회

6) 『맹자』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퇴계의 『孟子釋義』와 조선 전기의 맹자해석(-퇴계의 맹자학의 성격과 지향-)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2	함영대	18~19세기 조선 맹자학의 주석서와 그 작자	한국한문학연구 제53집	한국한문학회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중국·일본 학자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희	『맹자』의 不忍人之心에 대한 주희·이토 진사이·정약용의 해석 비교	동양철학연구 제80집	동양철학연구회

7) 『상서』

『상서』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은호	조선 전기의 서경학과 『書釋義』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2	김만일	정약용의 『상서』 「태서」편 고증 1(-「태서」의 분류와 금고문 상서와 관련하여-)	태동고전연구 제32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	진역령	한국 『상서』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동양고전연구 제57집	동양고전학회

8) 『시경』

『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수경	퇴계의 『시경』 釋義 고찰에 대한 번역학적 탐색	한국한문학연구 제55집	한국한문학회
2	신재식	정조 연간 학자들의 『시경』 체제 이해와 『日知錄』의 영향	대동문화연구 제85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9) 기타

경전별로 분류하지 않고 한 학자의 경학 사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석기	조선전기 경서해석과 이황 경학(-조식의 경학과 비교를 통하여-)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2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경학사상 서설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3	김성준	정다산과 오규 소라이의 경학 및 경세학의 비교 연구사 검토(-국내연구 중심-)	국학연구 제25집	한국국학진흥원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중용』과 관련된 주요 논문에는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윤행임의 해석을 다룬 「정조대 학술동향을 통해 본 윤행임의 「신호수필-『중용』」 해석의 특징과 그 의미」(남윤덕)가 있다. 저자는 먼저 18세기 후반 정조대는 주자학·양명학·고증학 등 여러 방면에서 학문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윤행임은 정조의 寵臣으로 주자학과 관련하여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윤행임은 한원진의 학풍을 계승하였으며, 정조가 추구했던 '漢宋折衷論'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그의 경학가적 면모는 「薪湖隨筆」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고 파악한다. 윤행임의 「신호수필-『중용』」은 단순히 『중용』 해석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자학을 위협하는 학문들에 대응하고, 자신의 학문체계인 주자학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더욱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또한 윤행임은 『중용』 해석의 방법적 측면에서 『대학』과 『주역』을 대입시키는 등 전형적인 '以經證經'의 고증적 방식을 택하는데, 이것은 고증학 자체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공부방식의 일부를 활용한 형태로 주자의 『중용장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자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저자는 평가한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는 陸·王學을 비판하고, 주자학 가운데 湖論 계열의 '人物性異論'을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윤행임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설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오류를 지적하여 주자학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편에 서서 18세기 후반 조선학계 내의 주자학에 대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윤행임의 「신호수필-『중용』」은 조선후기 학계의 학술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며, 아울러 18세기 후반 조선후기 학술사의 한 국면을 조명하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역경』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후담의 『역경』 이해를 그의 주저인 『周易象辭新編』을 통해 분석한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일고찰(-건괘를 중심으로-)」(최영진·이선경)이 있다. 저자는 이 논문은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역학자인 하빈 신후담의 역학사상의 특징을 그의 주저인 『주역상사신편』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라고 말한다. 『주역상사신편』은 신후담의 중기 역학사상을 담고 있는 저작이고, 27세에 집필에 착수하여 33세에 완료한 이 저작에서 신후담은 정주 역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미 자신만의 『주역』 해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신후담이 『주역』의 편제에 대하여 『周易傳義』와 같이 전체를 12편으로 나누지만, 곤괘 이하의 배열구조는 옳지 않다고 보고, 經은 경대로, 傳은 전대로 분류하는 건괘의 괘사 효사 단전 상전의 체제로 『주역』 전체를 다시 편집하는데, 이는 『주역』의 '경' 부분과 '전' 부분에는 일정한 사상적 차이가 있다고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또한 신후담이 괘효사를 해석할 때 각 효의 자리[位]와 그에 따른 象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을 통하여 '의리'를 도출하며 占을 언급하지는 않으며, 특히 爻變을 효사 해석의 구체적 방법으로 명시하여

각 효를 모두 효변에 입각해 풀이하는데, 이는 상과 효변에 입각한『주역』해석으로, 정주의 역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저자는 평가한다. 왜냐하면 조선 역학사에서 신후담 이전에 효변을 활용한 괘효사 해석의 사례는 간간이 있었지만,『주역』효사 전체를 효변에 입각하여 해석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증거를 말하고 있다. 또한 한 세대 뒤 인물인 정약용이 효변을『주역』해석의 방법론으로 체계화하였음을 볼 때, 양자의 효변론에 대한 비교연구, 더 나아가 성호학파 역학사상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신후담의 역학은 '의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주의 역학을 계승하고 있으며, 효의 자리와 상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종합하고, 효변을 괘효사 해석의 중심 방법론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주역』해석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신의의 해석을 다룬 「석탄 이신의의 『大學箚錄』에 관한 연구」(서근식)가 있다. 이 논문은 石灘 李愼儀의 『대학차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대학차록』에는 3가지 판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석탄집』에 실린 『대학차록』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고,『國際儒藏本』이 王心竹의 點校을 거쳐 句讀도 되어 있고『석탄집』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석탄집』에 실린 『대학차록』을 底本으로 삼고 『국제유장본』을 보충자료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대학차록』의「대학장구서」에 대한 주석에서 『소학』과 『대학』의 핵심을 敬으로 본다든지, '장구'에 대한 독특한 해석 등에 대해 오류라고 보고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오류는 『대학차록』이 37세 때에 지어지고 그 이후에 수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한편「대학장구서」가 끝나는 부분의 按에서 心, 性, 情, 志, 意 등을 주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독특하게 여겨진다고 평가한다. 傳文의 체제는 주자 『대학장구』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知와 行으로 나누어 보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언급들이 모두 구절로 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평가한다. 또한 주자와는 다르게 '謹'자와 '愼'자를 들어 언급했지만「격물치지보망장」과 같은 부분은 아무런 말이 없다가 '愼'자가 맞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저자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신의의 『대학차록』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춘추』와 관련해서는 정조의 해석을 다룬 「정조의 『경사강의』를 통해 본 춘추학의 핵심 쟁점(-경사강의「총경 1 : 춘추」를 중심으로-)」(김동민)이 있다. 저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정조의 『경사강의』에 수록된 『춘추』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춘추학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정조의 관점과 『춘추』 접근법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 자료에 대해 정조의 질문과 학자들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조의 단순한 학문적 흥미나 일시적 의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춘추』에 대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춘추학의 주요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날카롭게 질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 논문에서는 1793년의

10조목 중에서 『춘추』 기록의 형성 배경이나 기록 방법 등 춘추학의 쟁점을 다룬 네 조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자는 정조가 질문의 과정에서 먼저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각 이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다음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그 주장의 타당성을 묻는 형식으로 문답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자료를 통해 철저한 분석과 연구에 토대를 둔 정조의 학문 방법은 물론 『춘추』에 대한 정조의 학문적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논어』와 관련해서는 「퇴계학파 경전주석의 전승과 『논어석의』」(전재동)가 있다. 저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경서석의』로 알려진 이황의 경서 해석 자료의 명칭을 재검토하고, 17세기에 들어와 이황의 경서 해석이 기호학파 몇몇 학자들에 의해 논란이 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첫째, 『사서석의』와 『사서질의』의 편찬 주체 및 전승 과정, 둘째,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의 퇴계설 비판 과정과 추이, 셋째, 16~17세기 퇴계학파 경학의 특징 등을 대략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퇴계학파의 사서해석에는 금보의 『사서질의』, 이덕홍의 『사서질의』, 이황의 『사서석의』가 있으며, 『논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 텍스트의 구성과 수록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금보의 『사서질의』는 퇴계학파의 사서 주석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완성되었으며, 후일 금응훈이 『사서석의』를 편찬할 때 수록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한다. 둘째, 퇴계학파의 경서 해석 가운데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덕홍이 편찬한 『사서질의』를 비롯한 『심경질의』, 『주역질의』 등의 질의류인데, 이덕홍이 편찬한 질의류는 완성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후대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김만휴가 송시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한 이후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한다. 셋째, 송시열이 이덕홍의 저술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덕홍의 저술이 곧 이황의 저술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는 영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7세기 후반까지 이덕홍의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넷째, 아쉬운 점은 『사서질의』와 『사서석의』가 원형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편찬의 주체, 개정 과정 등을 자세하게 고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저자는 17세기 퇴계학파의 경서 해석은 본문에서 언급한 인물과 자료 이외에도 김부륜·유운룡·정경세·김륭 등이 남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할 때 온전한 실상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맹자』와 관련해서는 「18~19세기 조선 맹자학의 주석서와 그 작자」(함영대)가 있다. 저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18~19세기 조선 맹자학을 구성하는 주석서와 그 작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18~19세기는 상당한 경학 저작들이 제출되어 일찍이 '경학의 시대'로 인식되어 왔고, 그에 따라 연구 역시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지만 그 전체상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 글은 18~19세기 조선의 맹자 해석의 경향성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로, 『맹자』 각 장절의 주석 분포를 검토하여 그 관심의 경향을 파악해 보고, 그러한 주석서를 제출한 주석자들의 성향을 살펴본 것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 18~19세기에 조선의 『맹자』 해석은 큰 주석상의 빈도수로 파악하건대 그 빈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거나 그 주요한 관심의 영역이 변한다는 등의 급격한 관심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석의 분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경학의 효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하락과 무관하지 않으며, 아울러 주석자들의 성향이 다소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 근거로 첫째 18세기의 경우 『맹자』의 주석자들은 상당부분 세자의 사부가 되고, 중앙 정계에서 활동한 노론계열의 학자들이 많았지만, 이에 비해 19세기는 상대적으로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특히 영남 등 지방에 은거하며 조선 성리학의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나간 남인 학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대 시대적 여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英·正 연간에는 호학군주 정조의 존재를 비롯하여 경학적 소양을 통해 중앙 정계에 발신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이에 비해 19세기는 세도 정국의 여파로 더 이상 경학적 소양만으로는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여전히 성리 논쟁은 핵심적인 논의 대상으로 그 영향력을 잃지 않았고, 연행을 통한 서적의 수입은 제한적이었으며, 그 활용이 폭넓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주석의 분포와 작자에 대한 파악은 조선 후기 맹자학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서』와 관련해서는 「한국 『상서』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진역령)이 있다. 저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학술총람』과 공구서 전자 시스템에 수록된 1901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의 10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발표된 『상서』 관련 학술단행본·학위논문·학술지논문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상서』학 연구를 회고하고 또 그 미래를 전망해 보는데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 『상서』학 연구는 3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첫째는 한국에서 중국 고전 『상서』 원전에 대한 탐구인데 이를 '중국 『상서』 연구'라 칭하고 있다. 둘째는 조선시대 유학자의 서경 저술을 중점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를 '한국 『서경』학 연구'라고 이름 하고 있다. 셋째는 한국 이외 다른 나라 학자들의 조선시대 『서경』 저술에 대한 연구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 3가지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야 온전한 한국 『상서』학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향후의 연구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네 가지를 (1) 역본의 연구, (2) 학파별 연구, (3) 문헌적 연구, (4) 경연과 과거시험의 각 나라 비교 연구라고 파악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한국 『서경』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특히 정치사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시대 동아시아 각국의 학문 양상까지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한국의 학계에서 한국 『서경』학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측면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렇기에 연구할 영역이 더욱 많은 셈이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 연구영역들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 더 깊이 있고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 평가와 전망

한국 경학 연구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한 연구자가 특정 경학가의 경학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한 경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학가를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2014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첫째,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거의 연구 되지 않았던 김도·신후담·유정원·조호익의 『역경』, 서명응·윤행임·이규준의 『중용』, 이신의의 『대학』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의미가 있다. 둘째, 김동민 등 많은 연구자들이 하나의 경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하고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와 한 연구자가 하나의 경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연구한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